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사도 8, 5-8. 14-17
 [화답송] 시편 66(65), 1-3, 4-5, 6-7, 16과 20 (◎ 1)
 ◎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또는◎알렐루야.)
 ○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을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룩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
 [제 2독서] 1베드 3, 15-18 <또는 4, 13-16>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 15-21 <또는 17, 1-11>

성가	8시 미사	입당 131	봉헌 213 219	성체 177 174	파견 241
	11시 미사	입당 131	봉헌 213 219	성체 177 174	파견 24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6주일(5월 25일)		주님승천대축일(6월 1일)		성령강림대축일(6월 8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김말가리다(미숙)	임투카(승원)	이엘리사벳(자영)	정스텔라(애리)	황데레사(혜정)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정요한(석준)	최베네딕토(환준)	이레이몬드(창용)	정프란치스코(일환)	이베드로(기만)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김엘플레다(수연)	최베네딕다(수영)	이베로니카(경란)	정글라라(영희)	이골롬바(정연)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다른 보호자,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자연의 모든 생명을 낳아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이시며, 인간의 자연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드높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맡아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호자로 제자들에게 주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같이 해오며, 그분을 알아보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영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 참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은, 현세 생활에 눈이 어두워져 그분의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며 영적으로 변화된 제자들 안에서 성령이 함께 사시면서 모든 것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가 같은 생명 안에서 일치하며, 제자들도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킴으로써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이며, 사랑하는 것만이 참

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참다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김재영 요셉 신부
인천교구 용유 본당 주임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

세월호 참사는 너무 가슴 아픈 재앙이고,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적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 재앙에서 읽어야 할 시대의 징표는 무엇이고,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일지 진지하게 고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선주 측의 탐욕, 공권력, 선원들의 무책임,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3중 4중으로 덮을 놓고 어린 학생들을 몰살했다. 이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관피아들과 불의한 사업가들, 국가 지도층이 이 아이들을 바다 속으로 쓸어 넣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공모자인 셈이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악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죄다.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은 이런 우리 모두의 방조와 무관심이 저지른 죄를 밝히기 위해 필요했던 속량의 제물이 아니었을까?

예언자 예레미야의 외침 속에 팽목항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공명이 되어 들려온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마태 #2:18)

이제 우리는 일상화된 불의와 비리의 고리를 파쇄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개입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

비리의 소용돌이 -뇌물, 불량부품, 문서 위조- 속에서 운영되는 우리 원전들은 끊임없이 고장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전들에 후쿠시마형 사고가

터지면 세월호 사고와는 비교도 안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밀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을 바쳐 울부짖어 온 것은 사실은 그들 개인의 땅 문제만이 아니라 방사능 재앙에 대해 우리에게 던지는 예언적 경고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가장 작은이들의 아픔과 한을 공유해야 한다. 이 가장 작은이들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번영과 성장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저항의 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이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강우일 베드로 주교
제주 교구장 & 주교회의 의장

말씀의 향기

착하게 살자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주말이면 비디오시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많은 영화중에 마음속에 남는 하나가 “웬만하면 착하게 좀 살아라.” 였지요. 성 필립보네리의 성인전이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필립보네리 신부님은 로마의 뒷골목에서 불우한 청소년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기도생활을 강요하거나, 청소년들을 교육과 규칙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곁에 머물러 주고, 위로를 원하는 친구에게는 위로를, 고백성사를 원하는 친구에게는 고백성사를, 그리고 심지어 돈을 원하는 친구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을 마련해주고 그들 곁에 친구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웬만하면 착하게 좀 살아라.” 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필립보네리 신부님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다스리고 교육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을 섬기는 사제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사회가 외면했던,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청소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하는 신부님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고, 같은 처지의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과 함께 “오라토리오회” 를 세우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공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공이지요. 상위 1%를 강요받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성공은 무엇일까요.

필립보네리 신부님과, 그와 함께 했던 청소년들이 보여준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공적 삶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상처받은 세대입니다. 어른들의 강요에 상처받고, 어른들의 탐욕에 상처받고, 어른들의 시선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필립보네리 신부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머무르고, 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필립보네리 신부님입니다.

마침 내일이 필립보네리 신부님 축일이네요. 신부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묵상하며, 지금껏 청소년들을 대하는 내 삶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청소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동섭 가브리엘 신부
의정부 교구 봉일천 주임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제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모직 '사랑'과 '순명'입니다

글이현주 목사 / 그림김윤경

가톨릭전례 아홉째, 열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된다.

이웃의 아내나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된다.(탈출 #20:17)

십계명의 아홉째와 열째 계명은 탐욕을 경계하라는 권고입니다. 아홉째 계명은 육체의 탐욕을 금하고, 열째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을 금합니다. 6계명과 7계명은 실제로 죄를 짓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9계명과 10계명은 죄의 뿌리가 되는 탐욕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신바람도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 버는 욕심을 버렸다고 해 봅시다. 갑자기 인생의 목표를 잃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울증이 되어 버립니다.

욕구와 탐욕

우리는 욕심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욕구와 과도한 탐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욕구들(식욕, 성욕, 성취욕, 사랑의 관계에 대한 갈망 등)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욕이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탐욕을 움켜쥐고 살게 됩니다.

이런 욕구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적당한 욕구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정화하는 은총을 입게 해준다. 그러나 세례 받은 사람은 육체의 탐욕과 부당한 욕망과의 싸움도 계속해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20항).-

그런데 욕구가 올바른 대상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탐욕으로 변질되고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겠다”는 소극적 관점보다는 내가 집착하는 탐욕들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욕구하겠다”는 적극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탐욕을 버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을 버리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악령을 쫓으려면 우리 힘만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탐욕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잘 되지 않으니깐 더 답답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힘으로 악령이 밀려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보다 깊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무언가를 욕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왜곡되어서 지나친 탐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탐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 (요한 12,21)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기도하나요? 건강,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 등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나친 탐욕을 제거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은 텅 빈 모습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뵈고 싶은 소망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욕구해야 할 참된 대상이기 때문이고, 이 진정한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부질없는 욕심들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집착해서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인생에 긴장감이 있고, 성취감도 있고,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5월25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원젠편마
	연	소실베스터(철수)	권바실리오(영현)
	연	권베드로(태운)	권바실리오(영현)
	연	최안나	박헬레나
	연	노유스토(무현)	백미카엘/로사
	연	조마오로(동완)	이베로니카
	연	조마오로(동완)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조마오로(동완)	육아오스딩
	연	전대석/박마리아	전데레사(숙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생	본당신부님	김데레사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생	조엘리사벳 건강	한안젤라
	생	조마오로수녀님	이베로니카
	생	서데레사(춘애)	하느님의뜻영성
	생	신마태오	정카타리나
5월29일 목	생	신마태오	유이나시오
5월31일 토	연	김도마	김카타리나
	연	이요한	김카타리나
	연	정다니엘	김카타리나
	생	Justin Lee 영명축일	이막달레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9	241	-	340
헌금	\$662	\$1,289	-	\$1,951

< 교무금 > \$2,303

정창희(5) 정일양(5) 이흥구(5-6) 장진혁(1-4)
최순일(5) 김휘(4-5) 전덕천(5-6) 황현숙(5-6)
천종욱(5) 추혜성(4-6) 허동원(5-6)

< 성소후원금 >

정창희(5)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2차 헌금 > \$848

< Rice Bowl > \$818.95

~~~~ 오늘 간식은 김제랄드/김요한보스코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6월 8일 : Catholic Communications/Social Concerns

◆ 본당신부님께서 북미주 사제 연수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5월 28일(수)까지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오늘은 몬트레이 한인성당의 채홍락시몬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 야외미사 안내

6월 1일 교중미사 Joaquin Miller Park

9:00 ~ 10:30 Walk a thon

11:00 ~ 12:00 교중미사

12:00 ~ 1:30 구역별 점심

1:30 ~ 2:30 게임

\* 8시 미사 있습니다.

◆ 예비자 교리 신청

입교식 : 7월 6일 교중미사 중

예비자 분들이나 예비자를 인도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구역장회의 : 5월 25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5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5-6장**

|        |              |                     |
|--------|--------------|---------------------|
| 8-2 구역 | 5월31일(토) 12시 | UC Village 큰놀이터     |
| 10 구역  | 6월 1일(일)미사후  | Joaquin Miller Park |

◆ 대건산악회 5월 정기 산행 안내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집합시간/장소 : 오전 9시 반까지 성당 주차장

직접 오시는 분 : 10시까지 Redwood Regional Park

준비물 : 점심 및 물, 산행 필수품은 각자 지참

문의 : 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847-3014

◆ 서중부 남성 영어 꾸르실료 제11차 수강자 모집

기간 : 6월 26일(목) ~ 29일(일)

장소 : Holy Redeemer Retreat Center

접수 및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 6월 Hair Cut 봉사는 야외미사 관계로 둘째, 넷째  
주일에 합니다.

◆ 상반기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하반기에 간식을 제공해 주실 분들은  
성모회장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4-2015)**

- 5월 말까지 : \$270                      - 6월 말까지 : \$285  
- 그 이후                                      \* 개강일 : 9월 6일